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91.35	↓ 코스닥	852.42
	(+23.36)		(-6.13)
↑ 금리 (미국 9년)	3.163	↓ 환율 (원·달러)	1378.80
	(+0.043)		(-5.90)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02



미래사업 투자나선 SK, TRS 발목에 건전성 확보 난항

(총수익스와프)

AI 관련분야에 5년 간 82조 등
신동력 투자위해 재원마련 나서

SK은 재무구조 부실 해결 시급
계열사 내 사업정리·합병 고려
TRS 계약에 구조조정 어려워

SK그룹이 재무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계속하
고 있다. 그러나 사업 구조조정에 총수
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계약에 묶인 곳들이 많아 다소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SK그룹의 계열사
구조조정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향
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80%에 달하는 82조
원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
련 사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SK그룹은 현재 재
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태다. SK
그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재 지
난 1분기 유동비율은 100.56%를 기록
했다. 지난 2021년 109.38%, 2022년
103.08%, 지난해 말 99.21%를 기록 후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성 판단 기준치

인 100%에 간신히 안착한 상태다.

계속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
으나 최종 결론이 나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계열사 내 사업 정리 뿐 아
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을 고려 중이지
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RS 계약 잔
액이 1조 2319억 원에 달한다. TRS는
재무 구조의 복잡성으로 합병 과정에
서 이를 조정,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본 자산의 시장 위험 관리
를 위한 수단인 만큼 위험관리 전략 또
한 새로 세워야 할 뿐 아니라, 합병 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리스크 프로파일
변경 될 경우 TRS 계약의 유효성 마저
문제될 수 있다.

SK그룹은 최근 사업 재편의 일환으
로 SK온의 재무구조 부실 등을 해결하
기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
려졌는데, 현재 TRS 계약으로 묶인 상
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온
은 설립 이후 10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
상태로 현재 SK그룹 내 위기를 가져온
주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SK온은
이차전지 사업을 수행하며 SK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혔으나 전기차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겹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손
실은 3315억원으로 전분기(186억원) 대
비 적자 폭이 18배로 커졌다.

SK그룹은 주요 미래 먹거리로 낙점
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사업을 중시
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



삼성 '갤럭시 시리즈' 살펴보는 시민들

1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시민들이 전
시된 갤럭시 Z 폴드6·플립6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손진영 기자 son@

른 최 회장은 앞서 오픈AI, 마이크로소
프트, 아마존, 인텔 CEO 등을 잇따라
만나며 IT 소프트웨어 파워 확보를 위
해 동분서주한 데 이어 반도체 소재, 바
이오 등 미국 내 사업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미
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그룹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2024 SK 글로
벌 포럼'을 열고 그룹의 성장 전략을 공
유하고 최신 기술과 글로벌 시장 동향
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고액자산가 모십니다”

‘WM’ 힘주는 증권사

‘초고액자산(슈퍼리치)’ 시장을
공략하려는 증권사 간의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다. 증권사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기업투자금융(IB) 부문
의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
권사들은 자산관리(WM) 부문을 실
적 돌파구로 삼기 위해 동분서주하
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IB부문의 손실이
커져 증권사들이 눈을 돌린 곳은
WM 부문이다. 풍부한 현금을 보유
한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성 회복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
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WM 부문
에서 우위를 점하는 증권사가 관련
수익률 확보는 물론, 증권사로서의
신뢰도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고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산별·연령대별 부
서를 신설하거나 지점을 합쳐 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WM 전
략에 많은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
투자증권은 최근 3년동안 30억원 이
상 자산가고객을 48%,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71% 각각 늘리며 슈퍼리

치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초부유층 가족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패
밀리오피스’ 조직을 강화하며 각사별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이 최근 100개를 돌파하
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
부장은 업계의 WM 부문 강화 기조
에 대해 “초고액자산가들의 금융니
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들 자체가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한
고객군이다보니 별도의 조직이나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2022년부터 대형사
부터 중·소형사까지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로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증
권사는 8조7000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은행(46조2000억원)이나 여신전
문금융회사(25조4000억원)와 비교하
면 대출잔액 규모는 작지만, 증권사
의 지난 3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17.57%로 작년 12월 말(13.73%)보
다 3.84%포인트 높아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日 정상 “러·북 군사·경제협력 큰 우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
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연쇄 양자회담 진행
尹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
C.에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
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나토
의 동맹국 정상들과도 연쇄 양자회담
을 통해 신규 원전 협력과 핵심 광물 공
급망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윌러
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
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
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
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
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
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
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
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
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갈 희망한
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
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
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
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
은 뜻깊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대통령, 나토 정상 리셉션장에서 젤렌스키 조우 /사진 뉴스스
- ▲ 민주당,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감사원법 등 6개 당론 채택

- ▲ 깊어지는 원·한 갈등… 총선백서 발간 시기도 쟁점되나
- ▲尹 “100억 주지” 비판했던 민생지원특법… 이상민 “지방재정 큰 부담”



- ▲ 여 차기 당대표…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사진 뉴스스
- ▲ 조국 ‘다 공개 맨 위험’ 한동훈에 “불법 내용 자백한 것”